

영어에 관하여

2016/08, sh

Contents

들어가면서.....	1
영어 그리고 영어공부란 무엇인가.....	2
대한민국의 영어교육.....	2
1 만시간의법칙	3
영어문장 읽기(이해하기).....	3
영어문장 듣기.....	4
능동/외향/적극적으로	7
쓰기/영문작성기 제작.....	8
말하기	10
마치면서	12

들어가면서

이 문서는 영어권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써, 영어를 실용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워낙 많이들 고민하고, 언제나 핫한 영어"공부"라는 주제는, 아시다시피 왕도라는게 존재 하지 않을 뿐더러 열 사람이면 열 모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부디 이 글을 절대시 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영어 그리고 영어공부란 무엇인가

식상한 이야기지만 영어란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나의 또는 상대의 생각을 서로에게 전달하는 방법인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의 전달 이라는 도구로써의 목적입니다. 빨간색이던 노란색이던 상관없이 자동차는 A 에서 B 로 이동하는것이 목적인 도구이듯이. 영어 역시 생각의 전달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단지 자동차보다 약간 더 복잡하고 고차원적 이라는것이 다를 뿐이죠.

도구로써의 자동차를 사용하는(또는 사용법을 익히는) 방법(운전, 화물적재, 섹스)에 공통적인 기준이 있을순 있어도, 개개인의 필요와 개성에 맞게 모두 다르듯이, 영어 역시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익히고 사용하는 방식이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사용했던 방식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죠.

대한민국의 영어교육

저 역시 I'm a boy. 로 시작하는 중학교 1 학년 영어 교과서를 아직도 기억하는 전형적인 한국식 영어교육의 수혜자 입니다. 주어, 동사 어찌고. 1 형식이 어찌고 사역이 어찌고 부정사가 어찌고..중고등학교 6 년간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찌나 재미 없던지 말이죠. 욕 많이 먹는 교육방식이죠. 정작 실제로는 쓸수 없는 시험을 위한 교육이라고... 물론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만, 모르겠네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건, 제게 있어서는 그 쓸모없는 교육이 전혀 100% 쓸모가 없진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영어의 기본기는 다져지게 됐으니까요. 알파벳도 익혔고, 문장도 읽을줄 알게 됐으며, 몇 마디 안되지만 알아듣고 얘기 할수도 있게됐으니까요. 6 년이나 소비하지 않아도 됐었겠지만, 분명 영어가 어떤 도구인지 정도는 알게 해줬으니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글을 읽는 여러분도 분명 저와같은 상황일것이란 것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물론 더 나은 또는 못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나마 시작점을 잡고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끈대같은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1 만시간의법칙

다들 한번씩은 들어봤을 이야기죠. 어떤 기능/기술을 익히는데 1 만시간정도면 된다고요. 저는 이말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프로그래밍이던, 운전이던, 영어던간에 1 만시간 정도면 충분히 익히고 내것으로 만들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따라 숙련도의 차이는 나겠지만 말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미 아실겁니다. 영어를 익히는데 있어서 많이 해 보는것 외에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머리와 몸으로 익혀야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정말 왕도가 없습니다. 그래도 요령은 있을수 있겠죠.

영어문장 읽기(이해하기)

읽기는 그나마 쉬운부분이죠. 학교에서 매우 열심히들 했을테니,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읽기는 “독해” 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의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숙제로든 수업으로든 영어문장을 읽고 우리말로 뜻을풀이를 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행위를 “독해” 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읽기 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구지 옮기려 하지 말라.

학교에서 독해를 배운저는, 영어문장을 한국어로 옮기는 규칙을 외우고 적용하도록 훈련 받았죠. 예를들어서, I have to buy a red apple. 이라는 문장을 “I”는 “나는” “have to” 는 “~해야한다”. “red” 는빨강. “apple” 은 사과. “buy”는 산다는 의미를 이용해 변환 하도록 훈련받아, “나는 빨간 사과를 하나 사야한다” 라는 한국어 문장을 만들어 내야만 했던것이죠. “사과하나 사야하는데, 빨간걸로” 라던가 “빨간 사과 사야돼” 같은 문장은 이상하다는 식으로 교육을 받았읍니다. 같은 뜻인데도 말이죠.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때 우리말을 배울때, 누군가가 이 문장은 꼭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요했던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왜, 영어는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식의 훈련을 계속 받고 익숙해지면, “apple”을 보고 “사과”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지, 과일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는 익숙치 않게됩니다. “have to”가 가지고 있는 의미만 느끼면 되는데, “~해야한다”가 떠오르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새로운 문장을 만나면 이런 규칙들을 찾아 헤메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되지요. 모르는 단어라도 나오면, 사전 찾으랴 대응되는 의미 찾으랴, 의미가 여러개인 단어인 경우는 뭐가 맞는건지... 당연히 인터럽트가 많이 걸리고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수

밖에 없죠. 영어원서 읽는데 속도가 안나네 진도가 느리네,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식으로 “독해”를 하려 들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 하는 바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Multi phases 방식으로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나면, 문장을 읽어 나갑니다. 읽어가면서 우리말 단어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냥 단어가 가진 의미를 머리속으로 떠올리면서 읽어가지요. 문장이 전달하는 전체 의미를 희미하게나마 그려가는데 중점을 둡니다. 모르는 단어/구문은 넘어갑니다. 대충 무슨 뜻이겠거니 해놓고, 읽습니다. 그렇게 한번 읽고, 과연 내가 그린 그림이 맞는 그림인지 확인 하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단어 뜻을 찾아 보면서 읽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려놓은 그림을 좀더 다듬으면서 말이죠. 단어들의 뜻이 이해가 되면서 흐릿한 부분의 그림이 선명해 집니다. 이렇게 한문장이 이해되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 갑니다.

이런식으로 문장단위로 시작해서, 문단, 페이지, 그리고 챕터로 그 범위를 늘려 가는 거지요. 앞서 잠깐 얘기 했듯이, 단어를 구지 외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마음속에 떠올려 보고, 전체 그림에 맞춰보고 넘어 갑니다. 그럼 또 어디선가 그 단어와 마주치게 되지요. 그럼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저절로 단어와 친해지고 의미가 마음속에 남게됩니다. 그리고, 이런것들이 쌓이고 쌓여 나중에는 그냥 우리말 문장읽듯이 읽을수있게 됩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당연히, 말이 쉽습니다. 절대로 하루 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하고 시간투자하면 다 할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노하우도 쌓아 지게 되구요. 절대로, 에이시발 하고 집어 던지면 안됩니다. 하루에 한페이지라도 꾸준히, 어느정도 숙달될때 까지는 계속 연습해서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문장 듣기

듣기도 읽기와 마찬가지로,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학교에서도 듣기평가라는 항목이 있어서인지, 듣기 만큼은 그나마 교육 시키고 있다는거. 하지만, 문제는 귀가 영어의 소리에 익숙해지기엔 너무 적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점이죠.

또한, 실제로 사람들이내는 영어소리가 아닌 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소리만 쓴다는게 문제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만 보완하면, 읽기 연습으로 다져진 영어 머리를 그대로 사용할수 있으니 그나마 쉬운거라 해야할까요. 듣기가 읽기보다 쉽다니, 말도안돼. 라고 하는 분들 많으실줄로 압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가 다를 뿐이지 의미를 이해하는 연습은 이미 할 만큼 했잖아요?

소리에 익숙해져라

이제 눈이아닌 귀로 입력 인터페이스가 바꼈습니다. 알파벳 익히면서 눈으로 스캔하는건 알게 모르게 연습이 충분히 됐을테지만, 귀는 그렇지 않을겁니다. 많이 들어보면서 튜닝을 하는 수 밖에없죠. 들어오는 소리를 영어 단어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합니다. “애플”이라는 소리를 듣고 “apple”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합니다. “사과” 말구요. 그럼 늦습니다.

앞서 읽기부분에서도 말했듯이, “독해”를 하려는 머리의 습관을 막아야 합니다. “There was a huge fire that forced nearly a million of people to be evacuated in the middle of a cold but quiet night.” 라는 문장을 어디선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죠. 우선 귀가 영어 소리에 익숙해져서, 저 문장이 귀를 통과하는 순간 문장으로 변환되어 머릿속 어딘가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그럼 저걸, “독해” 가 아닌 읽기(이해하기)를 통해 의미로 변환해야 하는 거구요.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혹은, 길어야 1~2 초 만에 끝나야죠. 왜냐면, 소리는 글자와는 달리 없어져 버리니까요. 귀가 연습을 통해 튜닝이 잘되었다고 해도, 저 영어 문장을 “독해” 하려는 순간 다른 문장이 뒷따르는 사태가 벌어지고, 버퍼가 오버플로우 되면서 멘붕 상태가 되고. “sorry, I can't speak English” 라고 GG 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죠.

귀를 튜닝하는 법

튜닝이 안된귀로 영어를 들으면, 개소리로 밖에 안들리죠. 약간 트레이닝된 귀는 초반 한 두 문장까지는 잘 작동하다가, 나도 모르게 “독해” 기능이 발휘되는 순간 무너지죠. 이때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빨리 말한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완전 튜닝된귀는 소리가 흘러 지나가도 “a” “b” “c” 철자까지 잡아 냅니다. 그리곤, 라디오 뉴스 같은건 너무 또박 또박 말하는거 아니냐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럼 이제 제가 사용했던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초반, 영어소리에 귀를 최대한 많이 노출 시켜야 합니다.

팝송같은거 말구요. 비교적 정확히 발음 하는 뉴스 같은걸 계속 듣습니다. 알아듣고 못하고가 중요한게 아니구요. 이때는 귀를 영어 소리에 노출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요세 인터넷에서 라디오던 파드캐스트던 구하기 참 쉽죠. 전화기에 저장도 되고 플레이도 되고, 세상 참 좋아 졌습니다. 적극 활용하세요. 단, 같은 부분/내용을 계속들릴때까지 들으세요. 저는 한 6 개월정도 이려고 땀진것 같아요. Osmosis Jones 라고 빌머레이가 나오는 영화 대사 파일을 구해서 mp3 로 출창 듣고 땀졌죠. 하다보면, 웅얼웅얼 쓸라쓸라 하던것들 사이로, 영어 단어가 한두개씩 들려 오고요. 나중엔 문장 급으로 들립니다.

중반, 소리에 집중하세요.

문장 단위로 귀에 들어오면, 이제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의 문장들을 듣고 있다면, 어디서 무슨 소리가 어떤 문장으로 매칭되는지 파악해 보는 훈련을 합니다. 들리는 문장을 머리속에 그려보세요. “디스애플이즈베리쥬시엔크리슈”이라고 들리면 “This apple is very juice and crisp” 이라고 머리속든 받아쓰기든 잡아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거 “독해” 기능이 발현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영어 소리를 문장으로 캡춰하는 연습에 치중합니다. 이게 거의 완벽하게 된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후반, 들으면서 이해하기

이미 예상했겠지만, 이 단계는 앞서말한 “읽기/이해하기” 훈련이 충분히 되어있어야 가능 합니다. 너님이 만들고 있는 영어 해석엔진은 읽기랑 듣기에 같이 사용되니까요. 이때쯤 되면 애플은 그냥 apple 이지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그럼 그걸 해석엔진이 알아서 해석해서 너님한테 전달해 주는 훈련만 하면 되는거죠.

이미 너덜너덜해질 만큼 듣고땀진 그 소리파일과, 몇번을 씻는지모를 그 받아적은걸 실시간으로 듣고보면서 이야기의 내용을 머리속으로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아시시발 지겨워,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지 할때까지 말입니다. 이때쯤되면, 소리가 들릴때 대사를 치는 배우의 입모양과 들리는 알파벳이 머리속해서 매치되면서 그려집니다. 저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데까지 약 2 년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l vs r”, “p vs f”, “b vs v” 소리가 명확히 구분되고, 이 소리들을 한국어에서 구분하려고 쓸데없이 노력하는 귀를 가지게 됩니다.

연장전, 다양한 액센트 경험하기

아시겠지만, 영어가 거의 국제공용어로 쓰이다보니, 참 다양한 액센트를 접할수 있습니다. 저처럼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곳에서 생활하면 이게 저절로/강제적으로 되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역시 인터넷을 이용하면 되겠죠. 크게

영국/미국/호주/캐나다/아프리카/중국/중동/인도/동유럽/서유럽/남아메리카 아주시발 존나 다양한 액센트가 존재 합니다. 이걸 부딪혀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사람들도 지역에 따라 액센트의 차이가 있구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땅덩어리 크기에 비례해서 액센트 종류가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됐으면, 남들이 하는 얘기정도는 부담없이 이해하게 되 있을겁니다. 그럼 이제, 남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가에 대해 얘기해봤느니, 그 반대로 내 생각을 영어로 전달하는 기능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죠.

능동/외향/적극적으로

한국 친구들 중에는, 제 자신을 포함해 주위를 둘러보면 대체로 수동적이고 내성적이며 쥐 죽은듯이 조용한 성격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사회적인건지 생리적인건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로 의사표현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데는 아주 취약이죠. 벽보고 혼자 떠는건 좀 이상 하니까요.

영어권 나라로 넘어와서 생활하면서, 저는 제 2 의 자아가 생겼습니다.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활달한 녀석으로, 오지랖도 땅넓은줄 모르고 넓어지고, 하고싶은 얘기는 마음속에 못 담아두는 그런 좀 싸가지 없는 놈으로 말이죠. 아마도, 살기위해 연마한 영어로 표현하기와 자유롭게 개인의 의사를 개진하는것을 미덕으로 삼는 이 사회의 분위기가 맞물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물어 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확실히 한국산말고 캐나다산 제가 있는게 분명합니다.

이런 좀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이야기할 영어로 내 생각을 표현하는 기능들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뭐가? 능동적이고 외향적이면 적극적인 마음가짐이요.

적어도 제가 받은 한국에서의 영어교육은 100% 수동적이었습니다. 95%의 “독해”와 5%정도의 듣기연습. 제 생각을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기능들은 철저히 외면 받았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 주위의 한국인들은 대부분 읽기, 듣기보다 말하기 쓰기를 더 어려워 하는 경향을 보였죠.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 였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온 2002 년 당시에도 말이죠.

쓰기/영문작성기 제작

자꾸 끈대같이 나 어렸을때는 말이지 하는거 같은데, 국민학교 저학년때 이야기를 해 볼까합니다. 막 한글을 때고, 받아쓰기나, 그림일기 같은거 숙제로 하던때 말이죠. 분명,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유치 하기도 한 그런 수준의, 개발새발 써내려간 일기든 뭐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처음 써본 영어 그림일기를 생각해보죠. 한 오분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 나지 않는 다고요? 그럼 처음으로 썼던 토익/토플에서의 영어 콰이팅은요? 생각 바로나죠? 뭐라고 써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영어로 그림일기 같은거 써본 사람은 극히 적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한계단씩 천천히

무슨 이야길 하고싶은거냐, 끈대야. 라고 생각 하셔도 어쩔수 없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쉬운것 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도데체, 영어로 애들 수준의 일기도 안써본 사람들에게 이런시발 평소에 관심도없던 주제에 대해 영어로 글을 쓰라니 그게 되겠냐 이말이죠.

이걸 어려움없이 처음부터 잘 하는 새끼가 이상한 새끼거죠. 우리같은 일반 김치들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뭐 막히는것이 있어서 구글검색하는데 답이 존난 안나오는거예요. 그래서, 어디 외국 포럼같은데 질문글을 쓸라쳐도.... 걸어봤어야 뛰는시늉이라도 하는거죠. 그쵸? 헬로월드도 안쳐본놈이 FPS 게임만들순 없으니까요.

각설하고, 쓰기연습은, 쉽고 짧은 문장부터 차근차근 반복적으로 써보면서, 머리에 너님만의 영문작성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일기안써 봤어도 상관없습니다. 구지 내 얘기일 필요도 없고요. 뭐든 간단한거 부터 써보는거예요. 한시간에 한문장씩만 써도, 하루에 세문장은 쓰지않을까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영어로 글을 쓸수 있게 되는겁니다. 하루에 세문장 우스울것 같지만, 아마 일주일도 못할걸요?

아침에 있었던일 한문장. 점심먹고 오후에 있었던일 하나. 집에와서 저녁에 있었던일 하나. 그리고, 내일 할일 하나 정도. 총 네문장씩, 한달만 써보세요. 개인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달이면 많이 편해지고 시간도 빨라지고, 우스워 질수도 있죠. 처음엔 정말 간단히, 그다음엔 조금 덜 간단히, 그리고 약간 복잡하게. 같은 네문장을 써도 한달전과 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겁니다. 이게, 좀 지루하다 싶으면, 신문기사 같은거나 관심분야의 소식등 누가 적어 놓은 것들을 따라 써보는 연습을 하세요. 인터넷에 널린게 영문장이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아무생각없이 따라쓰기만 하는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목표는 너님 머리속에 영문작성기를 만드는것이기 때문에, 따라 쓰는 문장을 외울정도로 집중 하셔야 하는게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 과정들에서, 누군가가 본인이 써놓은것을 보고 피드백을 해주면 더 좋습니다. 스터디를 하시던 펜팔을 하시던, 그건 너님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겠죠. 이 연습도 한두달이면 지겨워서 못할겁니다. 이때쯤되면, 영문작성기가 영어로 자꾸 뭐라고 씨부릴려고 할꺼예요, 머리속에서요. 그럼 IRC 던 chat app 이던 이메일 펜팔이던, 포럼이던 가서 씨부리면 됩니다. 프깬에와서 지랄하는 것처럼요.

자신을 믿어요

물론 내마음대로 100% 되는건 아니예요. 이때도 내 온전한 생각이 영문작성기를 통해 표현되는 연습이 덜 된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쫄필요는 없죠. 어버버버해도 잘알아 먹습니다 네이티브들은. 여러분에 티비에서 우리만 어줍잖게하는 애들 다알아 먹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m sorry I don't speak English very well. 같은 이상한 말은 하지 마세요. 쪽팔리니까. 너님이 쓴그 글읽는 애들중에 우리말 너님이 영어

하는만큼 할줄 아는애들 별로 안될겁니다. 자심감을 가져요. 절대 미안한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실수 하는게 말이죠. 너님들 중에서 우리말 띄어쓰기나 철자법 100% 하는 사람없잖아요. 그쵸?

말하기

위에서 얘기한대로 영문작성기가 완성되신 분들은, 이제 인터페이스를 손꾸락에서 입으로 바꿔봐야 할 차례입니다. 아 물론, 동시에 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영어로 말하기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건 세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발성은 힘차게

우리말과 영어의 발성법이 차이가 난다는걸 아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혀를 놓는 위치는 물론, 목 또는 코에서 사용되는 근육들이 조금씩 다른것 같더라고요. 이걸 뭐 다른 종류의 소릴 내는것이니,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네요. 테레비에 나오는 외국 물먹은 연애인들 우리말할때와 영어할때를 잘 살펴보세요. 분명 소리와 톤 그리고 호흡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연습을 한것이 아니고, 제 2의 자아를 인식하면서 부터 알게된 사실인데요. 개인적으로 영어는 우리말보다 호흡이더 들고 울림소리를 더 내게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어요. 단지 한가지, 소리를 내실때 자신있게 내 지르시라는거. 쪽팔린다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내지말고, 당당한 소리를 내세요. 다른 근육들이나 호흡같은건 너님 자율?신경계가 처리하도록 두시고요.ㅋ

둘째, 소리 내서 읽어라

듣기연습할때든 미드를볼때던 애니를 볼때던, 따라하세요. 들리는데로 소리내도록 해 보세요. 읽기를 하실때도 소리를 내면서 읽어보세요. 위에 말씀드렸던 발성과 함께, 입술의 모양, 혀의 위치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소리가 제대로 안 만들어 집니다. 이걸 연습을 통해 근육을 트레이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그맨 김영철씨를 볼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냥만 정말 연습 많이 했구나 합니다. 발음과 발성을 들어보면, 웬만큼 연습해선 안나올 수준이거든요.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액센트가 어디에 있는가를 굉장히 잘 지켜야 합니다. 때굴때굴 굴러가는 발음을 아무리 잘 흉내내도, 액센트가 맞지 않으면 못알아 먹거든요. “나!”이아가라 폭포아니고, 나이”애!”가라 폭포입니다. 애를 들어서 말이죠. 머리속에, 아무리 성능좋은 영문작성기를 완성했어도, 발음및 액센트를 못맞추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이쪽애들. 특히나, 우리말에 소리구분이 없는 “l vs r”, “p vs f”, “b vs v” 같은거 혀에 완전히 익히는데 제법 걸립니다.

또 하나의팁은, 우리말 단어를 떠올리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girl”이란 단어를 소리내어야할때 “걸” 이라고 떠올리지 말라는거죠. “걸” 아니고 “거를”이 좀더 가깝습니다, 영어소리가요. “ring”도 “링”을 떠올리면 “링”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죠. “링”이라고 발음해보시면, 혀가 뒤로 말려가서 “r”소리가 나오는걸 느낄수 있습니다. 귀가열려 있으면 말이죠. 이것들은 애시일 뿐이구요. 우리말로 익혔던 소리들을 무시하는 연습을 하시라는 애깁니다. 영어사전이든 유튜브든 어떤소리가 나오는지 들어보시고 그소리를 표현하는연습을 하세요. Phonics 검색하셔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요.

셋째. 자기 속도를 찾아라

이 부분은 뭐랄까. 듣기랑 연동이 되어 하는건데요. 앞서도 말했듯이, 좀 튜닝이 덜 된 귀는 영어소리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리는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말하는 사람은 보통 속도인데, 나한테 좀더 빠르게 들리는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내가 빠르게 들리니까, 빨리 말하게 되는데요. 속도를 널라니 근육들이 잘 안따라 줘서 발성및 발음이 망가져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건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거의 천천히 또박또박 소리를 내시는 반면, 그렇지 않을수록 급하게 덜 된소리가 쏟아져 나오드라고요. 연습을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따라 다르지만, 보통 어느정도 선이되면, 입이나 목에 무리가 안 느껴질대가 옵니다. 아무리 오래 얘기를 해도 말이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자기 페이스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빨리 들려도, 들리는것 만큼 빠르게 소리가 나지 않는 다는거 명심하시구요.

마치면서

지금까지 제가 영어를 익히고 사용해오면서 느끼고, 생각했던것들을 짚적어봤는데요. 도움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졌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기능을 몸에 익히려면, 당연히 시간투자를 해야겠죠.

영어를 익히는 목적이야 다를것이고, 여기서의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영어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영어를 통해 보다 넓은세상을 볼수있는 도구로써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뽕이니 사대니 김치니 이딴 얘기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세계를 함께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이 과연 어떤곳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 가는가에 눈을 뜰수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였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도움 안되는글 읽어줘서 감사하고요. 부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